



동계농협, 지역 인재양성 위해 장학금 기탁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이 27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옥전장학회에 기탁했다. 동계농협은 지난 1964년 이동조합 합병, 운영으로 출범한 이후 미곡종합처리장과 비공동육묘장 운영 등 경제사업 중심으로 운영해 조합원의 이익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매해 김장나눔행사와 장학금 기탁, 일출돕기, 마스크 기부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빼놓지 않고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양준섭 조합장은 “동계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농촌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조합원이 행복하고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김형익)는 고창군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 고창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2차 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주무과장인 생활안전 교통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도로교통공단, 고창군청 등 유관 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계 민간전문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한속도 하향 등 주민들이 평소 불편을 겪었던 교통안전 시설을 모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5건의 안전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고창읍 일대 도로와 횡단보도 설치 등 11건이 적합성을 인정받아 가결 처리되었고, 4건은 부결됐다. 가결된 안전에 대해서는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장을 맡은 생활안전 교통과장은 “군민의 안전성과 의성에 방점을 두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 지역아동센터에 케이크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원)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민순)는 지난 23일 성탄절을 맞아 희망 가득한 케이크를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전달했다. 이날 회원들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심시열만 성금을 모아 인후지역아동센터, 기린지역아동센터,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케이크 70여개를 준비해 전달했다. 황승원 회장은 “성탄절을 맞아 관내 어린이들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케이크를 준비했다”며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장수 번암면 체육회, 화재피해 주민에 온정 손길

장수군 번암면 체육회(회장 이종섭)는 연말을 맞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번암면 대문마을 김정곤씨에게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종섭 체육회장은 “지난 8월 25일 원인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김정곤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말을 맞이해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문마을 김정곤씨는 “이웃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드리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번암면 단독주택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 살던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집이 모두 전소해 2,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골 넣고! 승리하고! 기부하고!”

전북현대 모터스, 사랑의 오오렐레·골스마일리지 통해 성금 2910만원 기부

K리그 사상 첫 5연패를 달성한 전북현대 모터스 선수들이 올 한해 골을 넣거나 승리할 때마다 모금한 성금으로 전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기부를 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허병길 전북현대 모터스 대표이사와 최철순 선수를 비롯한 전북현대 모터스 관계자들은 27일 전주시립미술관 방음홀에서 사랑의 오오렐레와 골스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성금 2910만 원을 기부했다. 올해 리그에서 가장 많은 22승과 가장 많은 득점인 71득점을 기록한 전북현대 모터스 선수들은 리그에서 승리할 때마다 100만 원을 기부하는 ‘사랑의 오오렐레’를 통해 2200만 원을 모았으며, 골을 넣을 때마다 선수들이 10만 원씩 기부하는 ‘골스마일리지’를 통해 710만 원을 모금해 전주시에 전달했다.

‘사랑의 오오렐레’를 통해 모은 2200만 원은 아침밥을 굽는 아동·청소년 300여 명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간식 생일케이크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엄마의 반상’ 사업에 활용되며, ‘골스마일리지’를 통한 성금 710만



원은 소의계중 아동들에게 연령별 희망도시를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전북현대 모터스 관계자는 “선수들이 일 년 동안 땀 흘려 모은 성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농진청 육가공 연구회, 수제 햄 600kg 기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육제품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는 ‘소규모육가공연구회’가 28일 전북 광역푸드뱅크(먹거리나눔터)에 수제 햄 600kg을 기탁한다. 소규모육가공연구회는 육제품 제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식육가공기술 교육 모임이다. 지난 2016년 창립해 이듬해인 2017년부터 연말마다 지역사회에 축산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연구 회원 30명은 매년 자비로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배운 기술을 이용해 직접 육가공제품을 만들어 기부하고 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북광역푸드뱅크는 기탁 받은 수제 햄을 전주·부안·무주·장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32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규모육가공연구회 장성환 회원(두지프로바이오틱스 연구소장)은 “연말 이웃 사랑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며 “더욱 열심히 기술을 배우서 맛있고 건강한 육가공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대 오충현 동문, 해외 보건의료 활동 외교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오충현 동문의내 24회 졸업생이 해외 보건의료 활동을 인정받아 제16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에서 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 동문은 전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친 뒤 페루 산타로사 병원에서 국제협력의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보건의료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퇴치와 수단에서 추월출중 사업, 에이즈예방 가족계획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외 보건의료 활동을 통한 지구촌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지 국립 Colonial War Memorial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피지 최초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양성했을뿐 아니라 일차 보건의료인력 교육에도 매진해왔다. 또 피지 귀질병 및 청력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청력검사 센터도 설립하는 등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오충현 동문은 페루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향상과, 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 피지 귀질병 및 난청환자 돌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성예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 봉사 ‘맞손’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는 지난 23일 성예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한 조끼 제공 및 2022년 봉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With동행 동아리의 독거노인에게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감소시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김상미 교수 지도하에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감소와 취약한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외로움 측정모델을 개발하려는 사업을 구상, 전주대 LINC+사업단 HATCH 리빙랩 연구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베스트(조끼)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게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습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성예노인복지센터 안미숙 센터장은 “독거노인에 대해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지나 학과장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고, 또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집·분석을 접하는 기회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 온라인 과정 개발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최근 2021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를 위해 온라인 과정을 개발·운영했다. 27일 호원대에 따르면,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는 지난 2016년 시작된 호원대만의 대표적인 교수법 프로그램이다. 매학기 신규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10주간 이뤄진다.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학생 중심형 수업설계,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 온라인 과정을 개발·운영했다. 언택트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수시스템을 가능하기 위해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 온라인 과정을 기획했다. 특히 기존 대면연수에서 제기된 원거리 참여의 어려

움, 시간조율 문제 등을 해소하면서 참여 교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신입교원의 강의 역량이 4.33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4.67점으로 향상됐다. 또한 강의소통역량 4.60점, 강의성찰역량 4.64점으로 상승하는 등 우수한 프로그램 성과를 거뒀다. 박진희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교수자 요구를 반영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공적인 신입교원 교수법 온라인 연수를 바탕으로 연수과정을 확장하고 교수자 커뮤니티나 SNS, 메타버스 등을 통해 토의활동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산=한경봉 기자



평화2동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전달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명덕)는 지난 24일 저소득 가구 21세대에 겨울이불과 온열매트를 전달했다. 권명덕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들이 매일 후원하는 후원금과 인명 후원자의 기부로 공동모금회의 사업비로 영양 들펻 찬(饌)s 요구르트로 주고받는 우리 동네 이웃소식 우리들이 그려낸 우릴함께 읍읍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문학초 학생들, 장터 수익금 엄마의 밥상에 기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터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아침밥을 굽는 친구들을 돕기로 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전주문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27일 ‘라온 환경 장터’ 수익금 106만8000원을 전주시에 기부했다. 라온 환경 장터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품을 가져와 파는 나눔장터와 전국의 특산물을 조사 홍보 판매하는 팔도장터로 열려 학생들이 물건을 팔며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수익금으로 기부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전달된 수익금은 300여 명의 소의계중 아동·청소년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주문학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키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저소득 소의계중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 가수 금청씨 성금2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27일 노래하는 CEO 가수 금청(본명 김성환)씨가 이웃돕기 성금 2,500만원을 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금청 씨는 남원 송동면에서 태어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CEO출신으로,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가수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큰 성공을 거두며, 대표곡인 ▲산바람 인생 ▲아름다운 내 고향이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금청 씨는 이번 기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회원이 되었으며, 전북에서는 78번째(남원시 2번째)로 회원이 되었다.(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5년간 1억이상 기부 실천) 금청 씨는 “나고 자란 고향에서 반겨주시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에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또 탄생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향 남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